2024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4. 4.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24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4. 18.(목), 14:00~16:45
- ◆ 장　소 : HJBC 세미나룸A
- ◆ 참　석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 일반안건 4건 5작품, 공모안건 1건 14작품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안건별 사전검토 의견서 보고 후 위원님별로 평가표에 따라 가/부/조건부승인/심의보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작품별 가/부/조건부승인/심의보류를 종합,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승인 결정을 하고, 미승인 작품의 경우 의견 교환 후 위원별 가/부/조건부승인/심의보류를 재결정한 후 최종 승인 결정을 합니다.
1번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안건>

1. 축적의 시간 - 핸들

<긍정적 의견>

- 변경된 위치는 기존 위치처럼 인접 천창이 없어서 시각적 간섭은 다소 개선됨
- 조각작품이 외진 곳에 방치되어 있지 않고 길가에 있어서 시민들이 접하기 쉬움
- 작품 감상에 더 적절한 위치인 듯하나, 주변의 조경수에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되길 바람

<부정적 의견>

- 작품 크기에 비해 기존 공간보다 협소하며, 작품의 주목도가 떨어짐
- 현 위치에서 안전바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 그래픽 상으로 작품설치 위치가 너무 협소하며, 변경 전(공개공지) 위치가 더 긍정적임
- 방사형으로 뻗은 작품의 모서리가 날카로운데 보도와 너무 인접해 있음
-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은 코너에 위치하며, 건물 외장과 비슷한 색채의 조형물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경향
- 보행자 시각으로 볼 때 조형물의 뾰족한 면이 보행로로 많이 튀어나와 보이므로, 현 위치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함
- 주변 수목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며(주변 식재는 키가 높지 않고 갈변하지 않는 사철나무로 변경하는 등), 조경계획 추가 필요
- 변경 장소는 공간이 더 협소하여 작품의 관람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작품을 공간에 억지로 끼워넣은 듯한 인상을 주어 답답하고 불편해 보임

2-1. 대칭행렬 : 눈 빛

<긍정적 의견>

- 미니멀하고 세련된 작품
- 변경 전작에 비해 조형 요소의 다양성과 규모가 풍성하며, 시각적 리듬감이 확장되어 주거지에 활기를 부여함
- 긍정적인 에너지, 따뜻함과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색채로 표현됨
- 다채로운 작품 구성
- 휴먼스케일과 형태적 다양성을 적용
- 변경 전에 비해 조경면적을 넓게 사용, 작품 배치 측면의 경직 감소
- 기단 없이 바닥면 전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리듬감 있게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매력도 상승
- 재료와 표현의 다양화, 조명의 도입으로 보다 풍요로운 향유가 가능해짐

<부정적 의견>

- 연결성이 없는 구성과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가 산만하게 전달됨
- 개별 작품 간 형태적, 색상적 측면에서 연계성 및 조화성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디저트 장식 같은 느낌의 작품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 어떤 예술적 특이성이 있는지 모호함
- 바닥면에 6개의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조형물은 걸터앉기 쉽기 때문에 훼손될 여지가 있음
- 화이트, 브라운 패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2개의 조형물을 제외한 3개의 조형물은 작가의 기존 작업물보다 다소 현대성과 감성적 미감이 부족해 보임
- 조형적 개성이 약하고 작품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음

2-2. 8 Symmetric Gardens

<긍정적 의견>

- 세련되고 간결한 구조로 고급스러움
- 볼륨감 있는 형태감과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구성임
- 변경 전의 작품과 비교할 때 작품의 조형성 및 설치 안정성이 주거 지역에 보다 적합함
- 대칭 형태의 작품은 대개 정적인데 이 작품은 역동성을 살림. 하단 부분의 형태가 미러 역할을 해서 다채로운 시각 경험을 줌
- 컬러면의 배색과 질감 표현이 조화롭고 모던하며, 도시공간에서 둥근 형태가 주는 감성이 원만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이끌어냄

- 균형미가 돋보이고 조형미가 우수
- 형태적으로 주거공간에 적절하고 구조가 심플하여 유지관리에 유리
- 단순한 구조가 작품을 감상하는데 집중력을 줌
- 신작을 시도함
- 반사면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용객의 작품과 상호작용이 가능함
- 2-1 작품과 같은 단지 안에 놓이는 점을 감안 했을 때, 더욱 조화롭게 느껴짐

<부정적 의견>

- 진부한 형태, 부담스러운 부피와 크기
- 아파트와 작품이 어울리는지 의문이며, 작품이 놓인 장소가 비좁아 보임
- 규모가 크고 다소 불안해 보일 수 있는 형태라 조형물이 놓이는 잔디밭의 평탄 작업을 넓게 구획하여 관람자 시각의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음
- 하단부 투명 우레탄 코팅의 내구성 우려
- 아파트라는 주거공간보다는 도심의 건물 앞에 더 적절해 보이는 다소 압도적인 형상
- 상부의 검정 부분이 오염에 취약해 보임(1년에 한 번 유지관리는 부족하게 느껴짐)
- 색 대비가 강렬하며 집중력은 있으나, 상단의 검은 덩어리감이 이를 매일 보는 주민들에게는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로 전달될 가능성

3. Evergreen

<긍정적 의견>

- 형태적으로 풍부한 구성
- 보행자의 시각과 동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람객과 작품의 거리를 친숙하게 좁힐 수 있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음
- 전반적으로 적절하며, 친숙함을 줄 수 있는 조형물임
- 건축적 규모의 작품으로, 작품이 연출하는 공간 내부에서의 체험을 가능하게 함
- 친숙함을 줄 수 있는 조형물임
- 보행로(단지와 외부등산로)의 랜드마크 공간 부여
- 수직구도가 시각적으로 시원함
- 작품위치의 장소성(자연 배경의 녹지공간, 입주민 휴식을 위한 잔디공간, 보행로 진입동선)에 적합한 기획의도 및 형태(작품사이로 보이는 경관, 파고라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과 그림자)
- 일상생활 중 시선을 상공으로 이끎
- 그림자와 그늘의 형성이 심미적이며 쾌적한 공간을 조성함

<부정적 의견>

- 단순한 구조이며 푸른 나무(숲)를 조형화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인위적이고 연관성이 없어 보임
- 설치 위치가 비상동선(이사차량, 소방차량 등)과 인접하여 이용 시 간섭발생 우려
- 동일한 무채색 계열의 색상으로 시각적으로 단조로워 보임(기둥 부분)
- 작가의 전작들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작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나무기둥을 상징하는 것은 지름 160~210mm로 변화의 폭이 미미하며, 나뭇잎을 상징하는 동그라미의 형태 역시 크기 면에서 변화감이 부족함. 나뭇잎의 펼침면은 단순 수평구도로서 전체적으로 밋밋한 인상을 줌. 전반적으로 변화감이 있는 구도로 디자인 변경이 필요함
- 파고라의 기능이 더 강조된 시설물의 느낌을 줌
- 수평으로 놓인 작품에 눈이나 비가 쌓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이며(고드름 등), 놀이터가 인접해 있어 특히 더 유의해야 함

4. Morning Dew

<긍정적 의견>

- 심의 부결 사유를 반영하여 보완된 작품
- 작가 작품의 연장선에서 작품 제작
- 세련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 설치 장소(계단)의 건축적 구조와 조화되는 조형성 확보함
- 가볍고 경쾌한 구조의 작품으로 과다한 공간을 점유하지 않음
- 재심 사유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짐. 작품 요소들의 상세사이즈 및 구조를 기재하였으며, 선적 요소에 비해 빈약해 보이는 면적 요소들을 사이즈면에서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감이 보완되었음
- 작품에 대한 3차 평가사안(작품규모, 밀도) 보완했으며, 계단을 통한 관람자 동선을 고려한 작품 유닛의 배치

<부정적 의견>

- 주변 공간을 왜곡되게 비추는 재료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조형성이 작가 고유의 독창성과 실험성을 보여주지 못함
- 공공영역의 조각작품으로서의 상징성보다는 샹들리에 같은 장식성이 앞섬
- 옆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손을 탈 수 있음
- 바닥면에 가장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몇 개의 파이프들은 자칫 어린이나 하단부 식재식물을 가까이 감상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뾰족한 면에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음
- 공간 대비 작품의 개수가 많음(단순 사이즈 업보다는 설치 높이와 사이즈의 조화 필요)
- 안전을 고려한 작품 위치 조정 필요, 작품 일부 유닛이 보행자 동선 위에 배치되어 작품 아래를 지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임
- 구조안전검토서에 따르면 실내 설치이므로 풍하중 미적용하였는데, 상가 주출입구에 작품이 위치하므로 기압차에 따른 바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심의결과 집계 및 결과발표〉

위원장 : 오늘 일반안건 5개 작품 중 2-1, 2-2번 작품이 승인, 1, 3, 4번 작품은 부결됐습니다.

<공모안건>

위원장 : 오늘 검토하실 공모안건은 동작구청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안건으로, 14개 공모작품 중 3건 선정 예정입니다. 공모 안건에 대한 심의도서 검토 후 평가 기준에 따라 2개 작품을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조각 작품은 1-2번 작품 슬라이스 이미지 '시간의 형상'이 당선되었으며, 회화 작품은 참석위원님들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해 당선작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4년 제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승인된 작품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